

32. 청량산을 사랑한 퇴계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퇴계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에 자신의
소회를 적었다.



세상살이에 길을 잘못들어
수십 년 세월을 낭비했는데...

돌이켜보니 망연하여 크게 탄식만 나올
뿐이다.

길을 잘못 들었더니
한 세월이 훌
가버렸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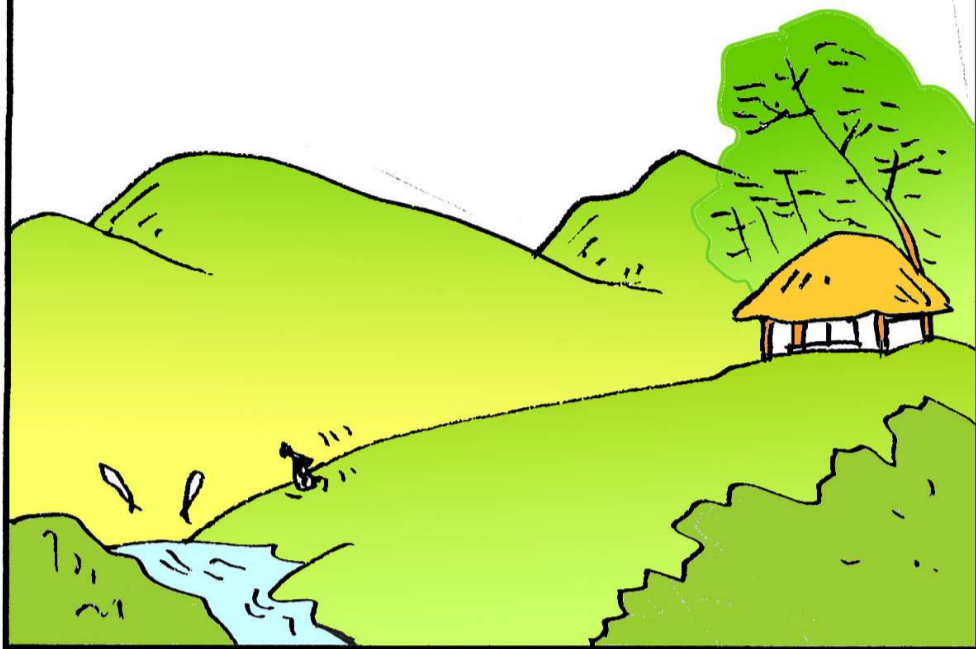


다행히 본래 자리로 돌아와 옛책을 찾아 읽으니
비로소 마음과 뜻이 합쳐진다.

그래, 내가
갈 길은 바로
이 길이었어.



시냇가에 몇 칸 집을 짓고 이대로 지내다 죽을 것을 기약한다.



남은 인생 사색하며 지내다가 홀연 도를 깨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영천(지금의 영주) 고을을 다스리던 허씨라는 사람이



퇴계를 찾아 온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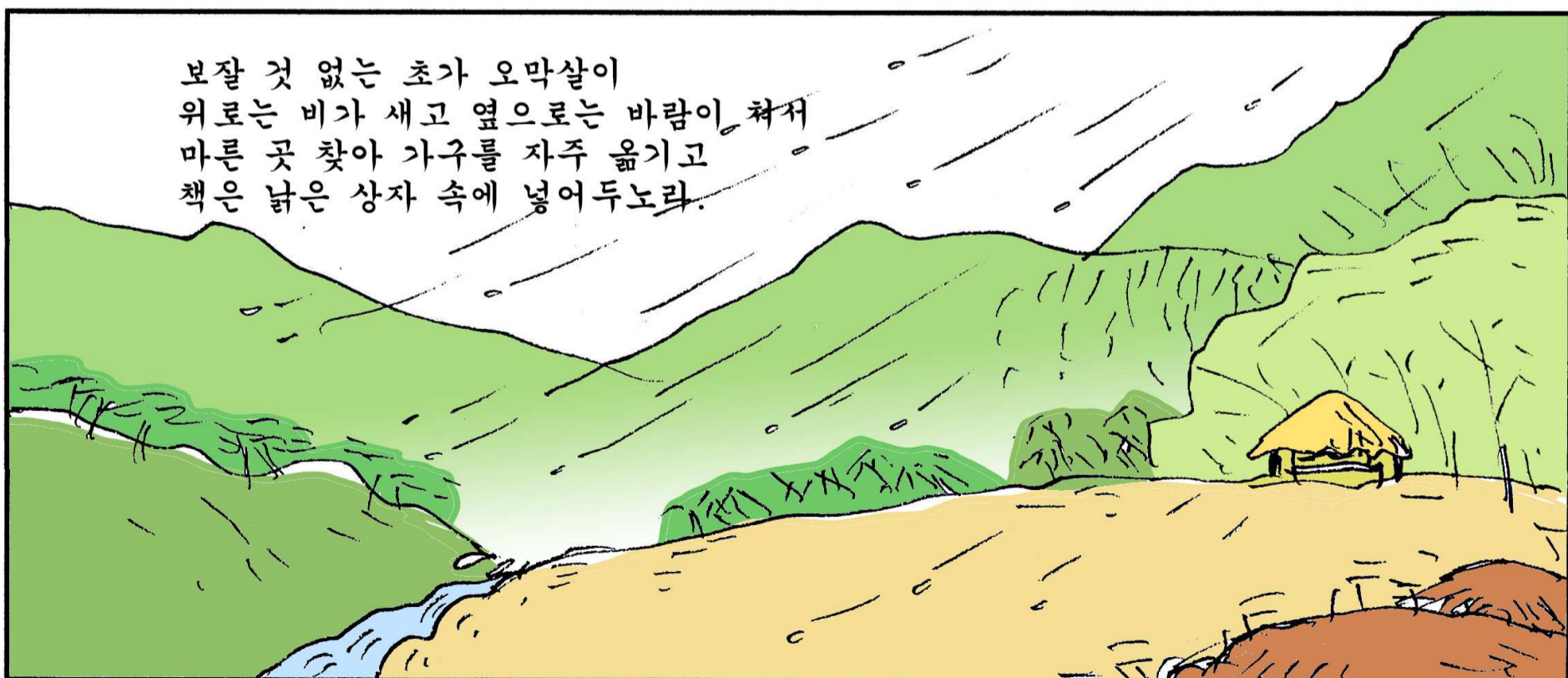


대학자께서 계시는 곳이라 대단한 곳인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퇴계는 학문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빗소리를
음악소리로
들으며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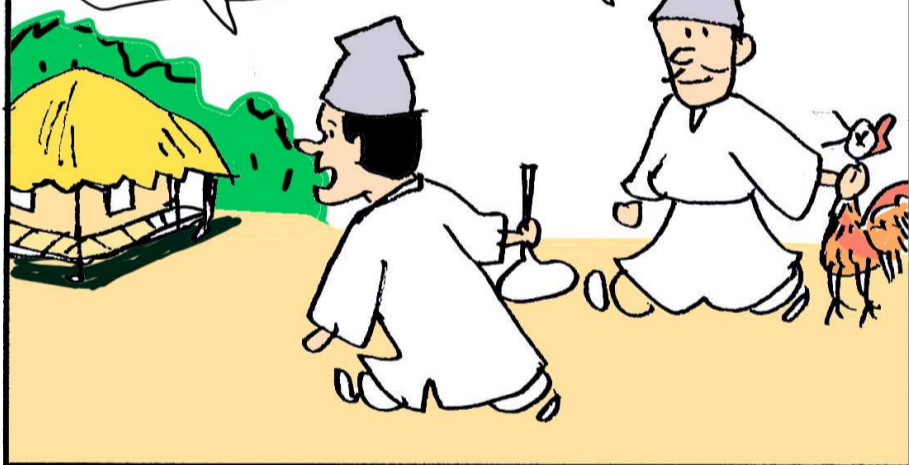
정신일도하사불성이라
환경 탓 하지말고 더욱 정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생일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찾아왔다.

선생님께
술 한잔
올려야지

난 안주
담당!



선생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잔 받으십시오.



안 받을테니
잔을 올리지 말게.

왜요, 선생님?



어머님 살아 생전에
축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제자들로부터 어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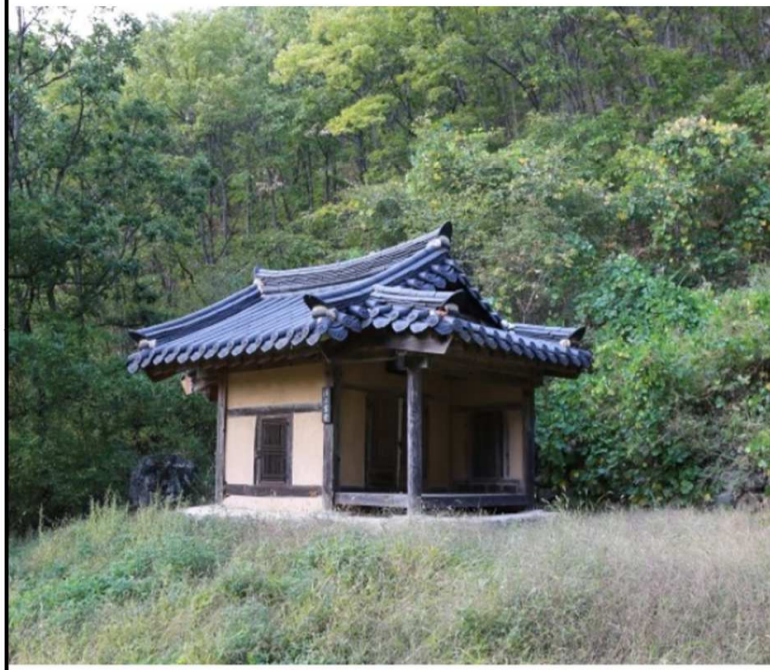
하면서 끝내
받지 않으셨다.



이 무렵 퇴계가 제자들을 받게 된 집을
계상서당이라 불렀는데 큰 비바람이라도
불면 넘어질 듯 작은 규모의 허술한 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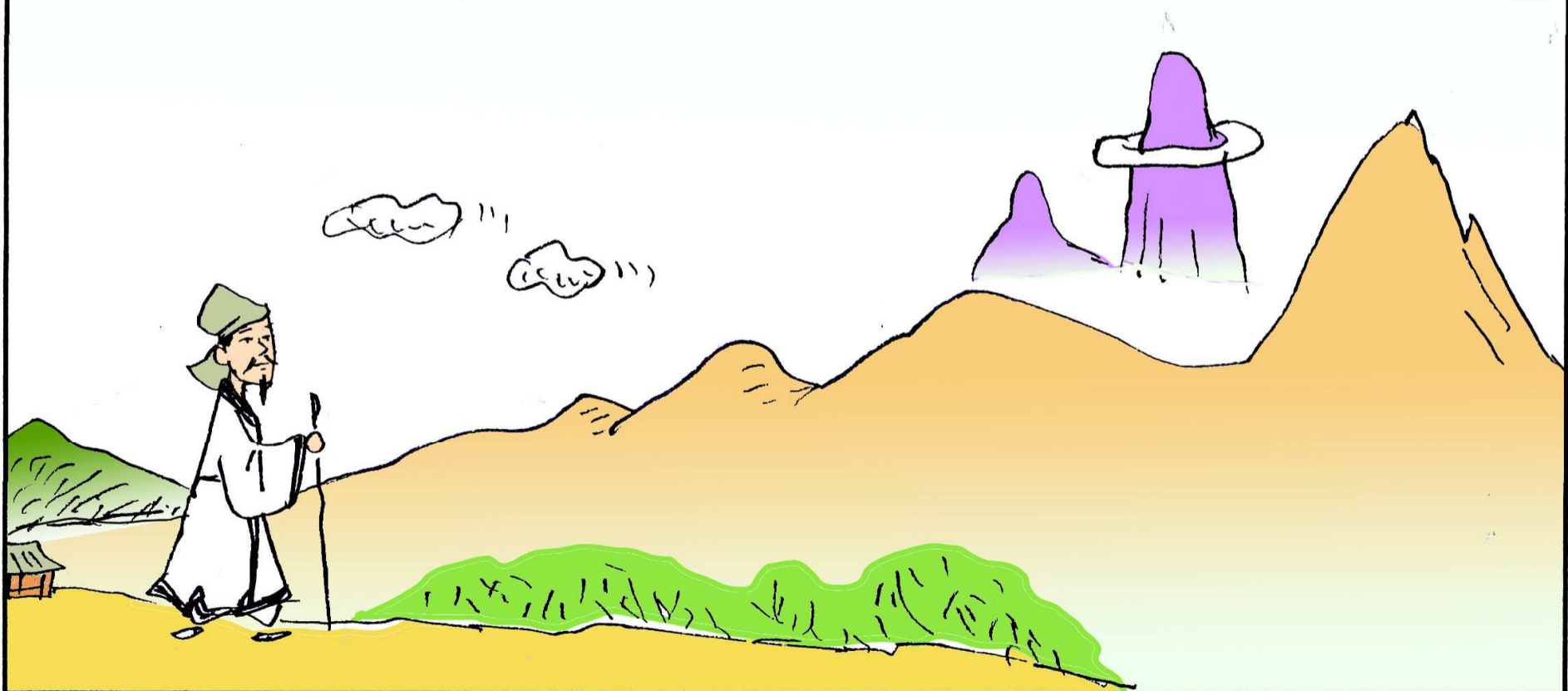


(현재의 계상서당)



다시 새해가 되어 자신의 심경을 시로 읊었다.

주선생의 가르침 따랐거늘
애달프다.
내 나이 반 백에도
찾아가 의지하고 우리를 곳이 없어서
예나 이제나
사람들 사이를 쓸쓸히 걷는다.



어느 때는 두보(당나라 시인)의 시를 읽고 짓기도 하였다.

구름문 두드려
도를 묻고
남 모르는 경지 얻고 싶어서
신선되는 약, 석수石髓 조차
얻을 수 없기를 바라며
생명의 알맹이 있는 곳에서
귀한 약초, 옥지玉芝를
먹고자 하네
천년토록 즐거움 남으리니
한날 티끌이야
어찌 그리며 슬퍼할까.



李龍眠法
後園

퇴계는 마치 골짜기의 난초 처럼
남모르게 향기를 풍기니



문하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들었다.

